경관이 가족 셋 권총 살해

고부갈등 비관 본인·딸은 중태

90.5.4

【부안=장세환 기자】 2일 밤 9시께 전북 부안경찰서 교통계소속 강현태(31) 경장이 부안군 동진면 안성리 632 자기집에서 리벌버 38구경 권총으로 가족들을 쏜 뒤 자살을 기도, 아내 정미숙(30)씨와 큰아들 주범(6) 막내 동환(1)군 등 세모자가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지고 강 경장과 딸 유영(3)양은 전주예수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강 경장의 여동생 혜란(23)양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께 방범순찰조에 편성돼 근무중이던 강 경장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 김삼순(56)씨와 아내가 심하게 다투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것이다. 강 경장은 오후 8시께 권총 1자루와 실탄 6발을 휴대하고 집으로 돌아와 건넌방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인 뒤 총소리가 났다는 것이다.

지난 82년 경찰에 들어온 강 경장은 직장 동료간에 의리가 있고 보따리장사로 3남2녀를 길러온 어머니와 아버지 강진규(60)씨에 대한 효성이 지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어머니 때린 아버지 살해

10대 집행유예 선고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정용인 부장판사)는 14일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를 칼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단기 2년6월~장기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원아무개(17)군에게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석방했다.

원군은 지난해 9월 아버지(당시 42살)가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린 뒤 이혼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자 부엌에 있던 식칼로 아버지의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군은 모범적인 학생으로 아버지의 행패를 참지 못해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며 잘못을